

토론

불안정성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경제적 주체

「앙트레프레카리아트와 호모 렌티어쿠스 사이에서: 경제적 인간의 초상
 <태풍상사>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권두현 ■ 연세대

김혜인 선생님의 발표문은 <태풍상사>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두 텍스트를 통해, 오늘날 ‘일하는 인간’이 불안정성을 기본값으로 떠안은 경제적 인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안정성이 심화되며 상시적 조건으로 지속되었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위기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삶을 지속적으로 ‘되밀림’의 형태로 압박한다는 시간성에 대한 재해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유연성’ 담론을 매개로 ‘앙트레프레카리아트’와 ‘호모 렌티어쿠스’라는 두 인간형을 제시하시고, 이 둘이 분리된 유형이 아니라 동일한 불안정성 체제 안에서 접속·전이 가능한 형상임을 분석하신 점은 이 글의 중요한 이론적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불안정성의 시간적·공간적 배치와 경제적 주체의 계보를 둘러싸고 몇 가지 논점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불안정성의 역사화: 신자유주의 프레이밍을 넘어서

발표문은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생성된 이래 심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IMF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긴축, 구조조정, 노동 유연화—을 핵심적인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설정은 현재의 노동·삶의 조건을 설명하는 데 매우 타당한 (그리고 익숙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때 ‘심화’에 방점을 두는 방식이 ‘심화되기 이전의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흐리게 만들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IMF 이후에 불안정성이 새롭게 생성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이전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위계—젠더, 계급,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어 온 취약성—가 단일한 ‘경제 위기’의 시간표 속으로 수렴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관해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문에서는 경제 위기가 종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을 주박하는 상시적 조건이 되었다는 언급과 함께, ‘되밀림’이라는 은유를 통해 위기의 시간성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기가 되밀림의 형식이라면, 그 되밀림을 가능하게 만든 더 오래된 취약성의 배치—누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먼저 마모되어 왔는지—까지 함께 역사화할 수 있지 않을까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신자유주의라는 문제 설정을 부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설명을 더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 IMF가 ‘새롭게 생성한’ 불안정성과 IMF가 ‘가속·증폭한’ 불안정성을 구분해 볼 수는 없을지, 그리고 근대 이후 지속되어 온 구조적 폭력—특히 젠더화된 노동, 계급화된 위험, 위계화된 지역—이 이 글의 분석 틀 안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

본이 보강된다면, 발표문에서 제시하신 ‘불안정성의 기본값화’라는 핵심 명제는 훨씬 더 강한 역사적 밀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경제적 주체의 계보: 자기주권성과 가부장적 형상

발표문은 IMF 위기의 정동이 이른바 ‘X세대’의 위기로 서술되며, 이들이 불안정성 체제의 핵심적 경험 주체로 호출된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기는 과연 ‘공통적’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X세대 내부에서도 젠더, 계급,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분화된 위기 경험은 없었는지, 혹은 그러한 차이가 특정한 ‘주류’의 서사 속에서 단일화되거나 평탄화되지는 않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태풍상사>와 <김부장>은 모두 1970년대생 남성, 곧 ‘일하는 인간’으로 호명된 남성 가장을 서사의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이 서사는 위기 속에서도 책임을 감당하는 남성 주체의 윤리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사는 다른 기억들—예컨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태풍상사>의 오미선, <김부장>의 이주영), 혹은 가사 노동을 담당해온 ‘집 안의 노동자(<김부장>의 박하진)’—의 경험을 다시 배경화하거나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지는 않은지요.

앙트레프레카리아트와 호모 렌티어쿠스의 서사는 자본주의가 마주한 위기의 서사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의 서사를 재전면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닐지요. 위기의 시대에 가장 먼저 호명되는 주체는 여전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남성’이며, 몫의 분배를 둘러싼 민주주의적 문제 이전에, 분배할 몫 그 자체를 쟁취해야 하는 책임의 형상이 강조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두 작품은 가부장적 계보를 갱신하거나 완성하는 서사로 읽힐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인간형은 단지 신자유주의적이라기보다는, 근대적이고 식민주의적인 통치 질서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가 단순한 ‘픽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동적 환경을 환기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가부장의 주변을 위계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앙트레프레카리아트와 호모 렌티어쿠스의 초상을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 초상이 기대고 있는 더 오래된 역사적 토대, 그리고 그 초상과 손쉽게 연결되지 못하는 ‘비주권적’ 존재들의 위치까지 함께 사유할 때, 발표문이 제기하신 문제의식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지역의 위상: 불안정성의 공간적 배치

앞선 두 논점이 시간의 문제, 곧 불안정성의 역사적 맥락과 경제적 주체의 계보를 다루었다면, 세 번째로 저는 공간의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문에서 분석하신 인물들(강태풍, 김낙수)의 서사는 단지 개인의 위기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공간 위에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중립적 배경이 아니라, 주체를 위계화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부장>에서 김낙수의 위기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서울-자가-대기업’이라는 표지가 흔들리는 과정입니다. 이때 서울은 단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사회적 승인과 계

층적 안정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반대로, '좌천'은 공간적 이동을 수반하는 경험으로 재현되며, 이는 곧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이동'이라는 감각을 생성합니다. 이때 지역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주류적 감수성을 위협하는 자리로 등장합니다.

<태풍상사>에서도 유사한 공간적 긴장이 작동합니다. 항만과 창고가 자리한 지역은 서울과 대비되는 장소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공간이 단지 낙후된 장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강태풍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기업가적 활력의 장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은 일시적으로 위기의 장소로 설정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적 주체의 재탄생을 가능케 하는 시험장으로 기능합니다.

경제적 주체의 계보를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지역은 가부장적 주체의 중심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공간적 대비항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기업을 환유하고, 기업이 국가를 환유하는 구조 속에서, 결국 생기성을 부여 받는 것은 국가 혹은 기업이라는 거대 주체입니다. 개인은 그 작동의 부속으로 배치되거나, 혹은 그 기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잉여-여성, 주부, 비정규 노동자-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역시 이러한 잉여의 공간으로 존재론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역은 이미 '폐허'로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느린 위기'는 '중심'의 위기에 가려져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배경지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불안정성은 단지 시간적으로 '심화'된 조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중심'의 불안을 감정적으로 증폭시키는 동시에 '주변'의 취약성을 배경화하는 방식으로, 차등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